

제약기업, 약가인하로 영업 악화

신한투자금융, 4월부터 내수시장 바닥으로 ... 투자의견은 중립

제약기업들이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 때문에 2012년 2/4분기부터는 영업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신한금융투자가 4월17일 주장했다.

배기달 연구원은 “1/4분기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동기대비 5.5% 늘어나 양호했으나 4월부터 실시된 약값 인하로 내수시장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”고 진단했다.

또 “3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2011년 3월보다 3.0% 증가하는데 그쳤다”고 지적했다.

배기달 연구원은 “약값 인하 이후 영업실적 추산에는 차액보상 등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 있으며, 제약기업 주가 흐름은 2/4분기 영업실적이 가시화하는 6-7월 방향성을 잡을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신한금융투자는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<중립>을 유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17>